

PA-61

유채 봄파종 재배 이모작 작부체계 연구김광수^{1*}, 권다은¹, 이지은¹, 차영록¹, 문윤호¹, 강용구¹Kwang Soo Kim^{1*}, Da Eun Kwon¹, Ji Eun Lee¹, Young Lok Cha¹, Youn Ho Moon¹, Yong Ku Kang¹¹국립식량과학원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¹Bioenergy Crop Research Institute, National Institute of Crop Science, Muan 58545, Korea**[서론]**

유채(*Brassica napus* L.)는 식용유와 차량 연료용 바이오디젤의 생산을 목적으로 재배되며 세계적으로 세 번째로 많이 생산되는 기름작물이다. 유채는 가을에 파종하여 재배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재배법이지만 겨울철 동해, 습해 등의 피해 발생이 빈번하여 유채 봄 파종 재배면적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또한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의 시행을 통해 유채를 봄에 파종, 재배하고 후작으로 콩이나 메밀을 재배함으로써 농가 소득향상을 유도하고 있으나 유채의 봄 파종 재배에 대한 연구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유채를 수확한 다음 재배할 후작물에 대한 연구도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채 봄파종 안정 재배법과 유채를 재배하고 난 후 적합 후작물 선발 연구를 통해 이모작 재배법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유채는 품종(3품종) 및 파종시기(4시기)를 달리하여 파종기계를 이용하여 줄뿌림으로 파종, 재배하면서 발아기, 추대기, 개화기 및 결실기 등의 생육특성과 주당협수, 협당립수, 수량 등의 수량 특성을 조사하였고, 후작물로 콩(2품종)을 유채 수확 후 바로 파종하고 재배하면서 발아기, 개화기, 결실기 등의 생육특성과 수량을 조사하였다.

[결과 및 고찰]

유채의 개화시는 가을파종에 재배하였을 때 4월 5일 전후이나, 봄에 파종(2. 28. 파종)하여 재배하였을 때 조생종인 ‘중모 7001’과 ‘탐미유채’의 개화시는 5월 8일, 만생종인 ‘탐라우채’는 5월 16일로 가을파종에 비해 33~41일 늦게 개화하였다. 파종시기(‘중모7001’)에 따른 개화시는 각각 5월 7일(2. 18. 파종), 5월 13일(2. 28.), 5월 15일(3. 8.), 5월 20(3.18.)일로 파종이 늦어지면 개화시도 늦어짐을 확인하였다. 유채의 생육 또한 파종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줄기길이, 이삭길이, 분지수 등의 생육이 저조하였고, 줄기길이의 경우 14~28%까지 작았다. 유채의 수확은 손수확을 기준으로 가을파종 유채는 6월 10일 경에 수확이 가능하였으나, 봄파종 재배의 경우 6월 24일부터 7월 4일 사이였으며 수확량은 파종시기별로 각각 235, 243, 172, 133kg/10a로 파종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후작물인 콩의 파종은 유채를 수확한 후 7월 8일에 실시하였으며, ‘태선’과 ‘대찬’의 개화시는 파종 후 40일과 42일 후인 8월 17일과 8월 19일이었고, 잎이 말라 완전히 떨어지는 성숙기는 각각 파종 후 106일과 110일이 경과된 10월 22일, 10월 26일이었으며, 종실 수량은 ‘태선’이 272kg/10a, ‘대찬’이 325kg/10a로 나타났다.

[Acknowledgement]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아젠다 사업(과제번호: PJ01361201)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로 이에 감사드립니다.

*Corresponding author: Tel. +82-62-450-0133, E-mail. ajuga@korea.kr